

미국대학 신입생 40년 간의 추이(II) : 1966년부터 2006년 까지

2009. 10. 07. (수) | 김지현(서울대)·김신애(열린지성 해외정보원)

* 본 글은 지난 호에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의 교육 및 문헌정보대학원 소속 고등교육연구소 (HERI: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가 CIRP(The Cooperative Institutional Research Program)와 공동으로 진행한 '신입생 설문조사 연구보고서(2006)' 가운데 후반부의 '대학교육'에 관한 항목들을 요약, 번역한 것이다. 순서는 5. 대학 수준의 학업을 위한 준비, 6. 보충학습 추이, 7. 학업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8. 기타 핵심적인 학업요소, 9. 대학신입생들 사이에서 테크놀로지 사용, 10. 생명공학과 의학에 대한 흥미 증가와 여학생의 주도, 11. 대학교육의 기회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CIRP의 신입생 설문조사는 YFCY (Your First College Year)와 CSS (College Senior Survey)를 포함한 일련의 연속적 평가프로그램의 기초작업으로서 설계되었는데, 미국대학 학생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가장 장기적인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이 설문조사는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0년간 미국 대학 신입생의 변화추이를 총 정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내 기초교양교육 분야가 신입생들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생에 대한 기초적이며 장기적인 연구와 자료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5. 대학 수준의 학업을 위한 준비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을 준비하는 기초과정을 마련하는 커리큘럼 개혁 이후, 여러 주에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주 차원의 대학학업준비권장 교과학습기간을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주요 과목에서 이 권장되는 교과목을 수강하는 신입생들의 비율이 증가했다. 1984년에 이미 가장 높은 비율(99%)을 기록한 역사나 미국정부에 관한 과목은 예외로 칠 때, 1984년과 2006년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한 영역은 외국어 (20%↑), 예술과 음악 (19%↑), 생명과학 (11%↑), 수학 (9%↑) 순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혁 이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미온한 변화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 미온한 변화들 중 중요한 것은 4년제 대학입학을 겨냥한 2년 기간의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조금 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몇몇 주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학업 준비과정에 넣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2006년 조사결과를 보면, 권장 수학기간을 채우는 학생들이 생물학 (46.8%), 물리학 (59.9%), 그리고 컴퓨터공학 (61.6%)에서 여전히 다른 과목들보다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코스를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 모든 학생들이 대학학업 준비과정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넘는 수준을 만족시키게 된 발전이 이루어진 후에도, 과학과 관련된 학문에서는 성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2년 과정의 물리학 교과목이나 컴퓨터 공학 교과목을 수강한 비율이 적다. 남학생들은 물리학 교과목을 63.7%, 컴퓨터 공학 관련 교과목은 67.2% 수강하지만, 여학생들은 각각 교과목에 대하여 56.7%와 56.9% 비율로 수강한다. 그러나 수학 교과목의 경우에는 준비단계에서 최하기준을 만족시키는지의 비율에서 그 성별격차가 사라졌다. 1984년에 여학생 87.8%와 남학생 91.9%가 고등학교

에서 3년 혹은 그 이상 수학과목을 수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22년 동안 이 수치는 여성 98.6%, 남성 98.5%로 증가하였다. 생물학 교과목의 경우에는 남녀 학생 모두가 2년 혹은 그 이상의 생물학 과목을 수강하였다고 응답하는 사례가 1984년 이래로 남학생 34.5%, 여학생 28.0%로 부쩍 증가했다. 여학생들은 항상 남학생들보다 대학 입학 전에 2년 과정의 생물학 과목을 수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여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의대에 지원하는 여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한다.

6. 보충학습(remedial education) 추이

최근 10년간 미국의 41개가 넘는 주의 주의회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성적이 우수했으나 대학진학 이후 수준의 학업에서 성공적으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Mazzeo, 2002), 학습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또 보충학습 출석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의 문제가 정책적 관심이 되고 있다. 더욱이 매우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업에서 최하기준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나타나지만, 이러한 사실에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과목의 질적인 수준까지 고려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3년 과정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목이 과연 학생들이 대학수준의 공부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준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주요 핵심 교과목에 개별지도교사가 있었거나 보충학습이 있었다는 응답은 1979년에 7.5%였던 것이 2005년에 12.7%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을 위해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은 특히 외국어, 과학, 수학과목에서 감소 추세이다. 대학의 보충수업 실태를 보면, 2년제 공립대학의 98%가 보충학습 코스를 운영해 왔으며, 4년제 공립대학에서는 80%, 그리고 4년제 사립대학에서는 59%가 보충학습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4년제 학교들이 보충학습이나 발전지원 교과목 (developmental coursework)을 위한 교과목의 운영을 줄이고(NCES, 2003), 커뮤니티 칼리지와 고등학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4분의 1이 수학과목에 대하여서 보충학습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Ignash, 1997).

보충학습에 대한 요구에도 인종/민족별 격차가 존재한다. 지난 35년 동안, 대학에서 영어와 수학 과목의 보충학습에 대한 기대치는 모든 집단에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존재하는 집단 별 격차를 살펴보면, 1971년에 백인학생들은 영어보충학습에 대해 가장 낮은 기대치를 보였으며(13.7%), 이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의 기대치(22.1%)의 반, 그리고 아시아계 학생들의 기대치(36.9%)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2005년까지, 이 비율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대학입학 시 수학 과목에서의 준비정도에 인종/민족별 격차가 존재한다. 아메리카 인디언계 학생들(43.4%)과 라틴아메리카계 학생들(38.55%)의 경우 수학 과목에서 특정한 유형의 특수개인지도나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백인계 학생들은 5명에 1명 꼴로 대학 입학시에 보충수업이나 개별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다. 물론, 이 응답들은 신입생 설문조사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치러지는 배치고사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보충학습이 모든 부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계속 제공되어야 하는지 또는 2년제나 K-12 공교육 시스템에 국한되어야 하는지는 정책적, 경험연구적인 질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대학수준에서의 보충학습의 영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영어와 수학에서 보충학습을 하도록 요구받은 학생들이 더 잘 살아남거나 더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학위를 무사히 마쳐서 주 차원에서 학위취득자수를 높이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ettinger & Long, 2005). 따라서 4년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되는 학업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돕는 특수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보충/발전학습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이를 다른 부문으로 넘기기 보다는 그 중요성

을 인지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확장하는 책임을 맡아야 할 지도 모른다.

7. 학업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1966년부터 2006년까지 학생들 스스로의 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39.0%에서 59.7%로 20.7%가 증가했으며, 작문 능력에 대해서는 30.0%에서 47.7%로 17.7% 증가했고, 성취동기는 60.2%에서 72.6%로 12.4%나 증가했다. 사실 성취동기를 드러내는 학생들의 자기평가는 2006년에는 모두 높다. 가장 극적인 향상 양상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최초 20년 동안에 일어났다. 이것은, 학업능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2000년대 학번만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학 교과목에서는 학문적 자신감의 증가가 매우 적은 편이며, 지난 10년 동안 창의력에 대한 자기평가는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8. 기타 핵심적인 학업요소 추이

(1) 수업지각비율의 상승, 퇴보의 징조: 고등학교 재학 마지막 해에는 수업에 지각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1966년의 48.2%에서 2006년의 60.6%로 늘었다. 이것은 아마도 “고참병”일 것이다. 물론 지난 5년 동안 이 추세와 약한 반전이 있긴 했다(2001년에 65.1%였음). 아마도 학생들이 대학입학사정관이 고등학교생활 후반부의 참여여부와 성실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전국규모 연구보고서들에서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성실하게 잘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대학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AACU, 2007).

(2) 재택과제에 할애하는 시간 감소: 우리가 처음으로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 시간을 재어보는 방법을 도입했을 때인 1987년(47.0%)에 비해 2006년에는 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1주일에 6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집에서 과제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최소한 6시간은 과제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반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52.9%)이 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에서 5시간 사이의 시간 동안 과제를 했었다고 밝혔다.

(3) 교사들과의 접촉 감소: 가끔씩 교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1967년의 39.7%에서 2006년에는 22.9%로 반이나 감소했다. 수업 후에 교사에게 자주 질문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1967년 28.2%에서 2006년의 26.0%로 약간 감소했다. 약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교실 밖에서(수업시간 이외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했다. 43%는 교실 밖에서 교사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1시간 이하라고 하였다. 20년 전 응답자들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1주일에 1시간이나 그 이상 교실 밖에서 교사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통계는 염려스러운 것인데, 왜냐하면 대학에서의 교수진과의 접촉은 학습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Astin, 1993; Pascarella & Terenzini, 2005). 더군다나 강의교수자와의 교류는 학생들이 강의내용을 이해하고, 학문적인 능력을 습득하며, 학문적으로 원만한 느낌을 갖는 데에 결정적인 것일 수 있다.

(4) 저조한 성적은 지난 일이다? : 2006년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 중 고등학교 시절 평점 C를 받은 학생들은, 1966년의 8.6%와 비교했을 때, 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졌다.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입학하는 “성적 인플레이션” 경향은 1987년에 최초로 보고된 뒤에 최근 20년 동안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지속되었다(Astin, Green, & Korn, 1987). 지난 10년 동안, 고등학교 평점이 A-였다는 응답 비율은 2006년에는 최고점(24.1%)에 이르면서 계속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에서 평점 A 또는 A+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2004년에 가장 높았다(23.7%). 이러한 추이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들이 AP 코스를 수강할수록 대학입학 당시 고등학교 성적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2006년에는 60.6%의 대학신입생들이 평점 B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1967년에는 26.7%였다.

9. 대학신입생들 사이에서 테크놀로지 사용 추이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며 인터넷에 능숙한 대학신입생들이 급격히 늘었다. '온라인 국가(A Nation Online)'라는 2004년 보고서에서 국가통신정보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18세와 24세 사이의 학생들의 86.7%가 어떤 형태로든 (집, 학교, 지역도서관 등) 인터넷 접속을 한다고 밝혔다(NTIA, 2004). 이것은, 직업연령대인 25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들도 71.7%라고 응답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 조사에 참여한 어느 연령대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와 같은 젊은 층(18-24세)은 CIRP의 신입생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나이대와 비슷하다.

연구와 과제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앞질렀다. 여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빈도는 1998년의 43.8%에서 2005년의 83.3%로 증가했다. 남학생들의 경우, 교육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1998년의 45.4%에서 2005년의 75.2%로 증가했다.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의 격차는 보다 웹기반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수법으로 옮겨가고 있는 기관들에서 발견된다. CIRP 최근 설문 조사에서는 남학생들은 뉴스를 보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블로그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보다 눈에 띄는 격차는 인종/민족 집단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따라 나타난다. 1998년에는, 40.5%의 백인과 51.0%의 아시아계/태평양 섬 계열 학생들이 연구와 과제를 위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흑인과 라틴아메리카계 학생들은 각각 32.1%와 34.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2005년까지, 모든 인종/민족 집단이 연구와 과제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에 있어서 큰 증가를 보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류의 인터넷 사용에서 인종/민족적 집단별 격차는 다소 줄어든 반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성공여부, 대학중퇴율과 같은 기준을 놓고 경쟁하는 대학기관별로는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정의 소득에 따른 격차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최저소득층 출신 신입생들의 30.6%만이 연구와 과제를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반면, 최고소득층 출신의 신입생들은 52.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7년 후에, 최저소득층 출신과 최고소득층 출신의 신입생 간의 연구와 과제를 위한 인터넷 사용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1998년에는 21.5%였던 격차가 2005년에는 11.0%로 줄어들었다. 요약하면, 인터넷을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나 최근에 들어서 인종과 가족소득 측면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0. 생명공학과 의학에 대한 흥미 증가와 여학생의 주도성

최근에, 과학과 수학배경이 강하게 필요한 분야에서의 수강학생 부족현상과 더불어 과학과 수학 과목 준비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Spellings Commission 보고서(U.S.DOE, 2006)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미래의 고등교육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CIRP 신입생 설문조사 추이자료는 연구분야로서의 과학과 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여준다.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신입생들의 관심이 1980년 이래로 상승세에 있다. 1976년 이래로 생명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여학생(9.2%)과 남학생(7.3%)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여학생들의 관심도가 남학생들의 관심도를 앞지른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의학에 관한 관심에서도 1970년대 이래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앞질러왔

다. 간호학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성별 격차가 지난 40년 동안 계속되었다 여학생들은 대학입학 시에 간호전공에 대하여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격차는 학생들의 진로희망과 간호학 분야에 지나치게 몰리는 경향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Astin, Oseguera, Sax & Korn, 2002). 사실,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혹은 관심이 없는) 남학생들은, 고등교육기관과 노동력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려는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을 긴히 필요로 하는 의학관련 직종 모두에서 딜레마가 되어 왔다.

주요 의학 관련 직종에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고등교육기관들은 과학과 의학관련 전공과 진로관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뒷받침하고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신입생들의 변화하는 헌신도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과학과 기술혁신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는 그들이 선택한 과학 분야에 이론적인 기여를 하려는 강한 욕구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학생들의 헌신도는 최근에 증가하였으며, 대학 입학시 이러한 목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남학생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22.3%). 여학생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목표에 대한 헌신도가 증가한 응답을 보이고 있다. 대학신입생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경향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헌신도가 새롭고 적절한 교수법과 커리큘럼 그리고 이 분야의 학습을 개선하는 방법의 개발, 그리고 정책적 개입 (U.S.DOE, 2006)과 노동력 수요와 현실적 필요(NSB, 2002)에 따라 길러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등교육기관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대학생들 동안 학생들이 중요분야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유지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1. 대학교육의 기회와 선택

최근 몇 년 동안, 고등교육 연구자들과 행정가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대학입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들, 노하우 서적들 그리고 대학관람 등의 영세수익사업들이 자라났다. 대학들 또한 시장의 압력에 굴복하여 가장 훌륭한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케팅과 지역사회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학생과 자원, 캠퍼스 시설, 순위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4년제 대학에서 대학선택의 문화적 기준이 새로이 정의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등교육기관들은 상품포장과 마케팅에 보다 밝아졌고, 학생들과 그 가족들 또한 그들의 대학선택에서 가장 높은 교육적 가치를 '쇼핑'하는 것에 정통하게 되었다.

(1) 학생들이 갈수록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하다: 대학선택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다 많은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생겼다. 1967년에는 대학신입생 중 5명에 1명 꼴 (19.9%)로 4개 대학 혹은 그 이상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06년에는 56.5%로 거의 세 배가 되었다. 반면에, 한 개 대학에만 지원했다는 학생들의 숫자는 같은 시기에 반 이상 감소했다 (43.1%에서 17.7%로 하락). 학생들이 제출한 대학지원서의 실제 수치는 지난 4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으며, 지원절차가 간단해지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추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경향이 되었다. 입학허가 결정이 통보되는 매년 봄이 되면, 사람들은 학생들이 스무 개 대학 혹은 그 이상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사실은, 2006년 기준으로 2.2%의 학생들만이 12개 또는 그 이상의 대학에 지원했다. 이 수치는 2000의 1.3%에서 증가한 것이나 지원서를 제출하는 학생수 전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2)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로 거론되는 것들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 대학교육 경험이 오늘날의 신입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과거의 학생들보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게 만들었다. 이는 또한 학생들이 점점 더 대학교육을 그들의 인생목표를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976년에 응답에 등장했던 대학에 다니는 이유들이 역시 오늘날에도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다. 1976년에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와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는 2006년인 현재까지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들이다.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1976년에는 이 응답을 한 학생들이 49.9%에 불과했으나 7년 후에는 64.9%로 증가했으며 1980년대에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69%에 도달했다. 또 다른 변화는 일반대학원이나 전문직 종을 위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학생들이 1971년의 34.9%에서 2006년의 57.7%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3분의 1의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다.

(3) 학부모 영향력의 증가: 대학입학에 있어서 부모의 격려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76년에는 29.0%의 남학생들과 30.9%의 여학생들이 학부모의 격려를 대학에 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 수치는 두 집단 모두에서 2006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여학생들의 응답이 남학생들보다 약간 더 많았다. 학생들은 또한 집을 떠나오는 것이 대학에 입학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3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남녀 학생 모두 고등교육을 받으라는 부모의 격려를 비슷하게 얻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이러한 의식과 가치는 기술분야의 고용이 더욱 늘어난 산업화 시대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교육이 새로운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결정적이 되는지를 보여 준다.

(4) 대학순위의 중요성은 상대적이다: 2006년에는 모든 신입생들의 반 이상이 대학의 평판이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983년 (58.4%)에 비하여 비율에 별 변화가 없는 것이다. 대학 선택에 매우 중요한 이유로 지목되는 다른 두 가지는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대학원 진학을 한 수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부풀려진 관념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대학을 입학한 신입생들의 16.4%만이 대학선택에서 순위가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가 대학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00년의 6.8%에서 2006년의 17.0%로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 순위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대학에 관한 정보공유가 보다 민주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McDonough et al. (1998)은 정반대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즉, 이들이 보기에 보다 부유한 가정이 대학순위에 가치를 두고 자신들의 대학선택에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대학순위의 이용은 부유한 학생들이 대학선택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학생들이 최고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

(5) 1지망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비율이 줄어든다: 1970년대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일순위로 선택한 대학에 진학한다. 1975년에는 79.7%의 학생들이 일순위로 지망한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었다. 2006년에는 67.3%의 학생들만이 1지망 대학에 등록했다고 응답했다. 나아가서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대학을 선택했다는 학생들이 1972년의 19.5%에서 2006년에는 34.3%로 증가했다 - 이것은 1995년 이래로 계속 맴도는 수치이다. 사실, 대학선택과 경제적인 고려에 관한 우리의 분석이 나타내는 것은 1지망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 중에 꽤 많은 숫자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2, 3, 4번째 순위로 지망한 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Pryor et al., 2006).

참고문헌

- Astin, A. W. (1993).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Astin, A. W., Green, K. C., & Korn, W. S. (1987). *The American Freshman: Twenty Year Trends*. Los Angele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CLA.
- Astin, A. W. & Oseguera, L. (2002). *Degree Attainment Rates at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Los Angeles: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CLA.
- Ignash, J. M. (1997). Who Should Provide Postsecondary Remedial/developmental Education? In J. Ignash (Ed.) *New Directions for Community College*, No. 100 (pp.5-20). San Francisco: Jossey-

Bass.

Mazzeo, Cl. (2002). Stakes for Students: Agenda-setting and remedial education.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6, 1:19-39.

McDonough, P. M., Antonio, A. L., Walpole, A. M., & Perez, L. X. (1998). College Rankings: democratized college knowledge for whom? *Researcher in Higher Education*, 39, 5, 513-537.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 (2003). Remedial Education at Degree-Granting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Fall 2000, NCES 2004-010, BY Basmat Parsad and Laurie Lewis. Project Officer: Bernard Green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National Science Board (2002).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Arlington, VA: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2 (NSB-02-1)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2005).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U.S..Department of Education (DOE). (2006). *A Test of Leadership: Charting the Future of U.S.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